광주시 '도심융합특구' 좌초 위기

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 지적
사업 조성계획 최종 확정 안돼
용역비 25억원 내년 예산 미반영

광주시 북구 광주역 일대 등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드는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용역비 25억원이 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지만 지난 8월말까지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2021년 본예산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예산이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도 아닌 시작 단계의 용역비인데다 지방 대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 '실리콘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경제공간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기업의 R&D 센터, 첨단기술개발, 실증사업 지원과 이전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지방 대도시의 산업생태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수도권의 선도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 유망기업, 스타트업 사업 등의 규모를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청년인재들의 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조오섭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혁신 성장의 중심이 될 신경제 거점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철학이 녹아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본예산에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 반발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율 인하

정부가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결국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그간 대주주 요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 '동학 개미'들의 반발도 고려됐다. 결국 막바지 조율을 위해 모인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비 수산물 검사 강화

전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일본정부 방류 계획 철회해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전남도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은 대한민국 수산 1번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막대한 수산업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예상되는 어업피해와 오염 수산물 섭취에 따른 국민 피폭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달부터 도내에서 생산되거나 거래되는 이전 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요오드·방사능 세슘 등 2개 항목 검사를 강화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이 맡아 조사 건수를 월 40건에서 월 50건 이상으로 늘리고, 품종도 현재 45품종에서 모든 품종으로 확대했다.

검사 방식도 건당 1800초가 걸리는 신속 검사 방식에서, 건당 1만 초가 소요되는 정밀검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방사능 조사 장비를 구축하고 매년 검사 건수를 늘려왔다. 앞으로 방사능 조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감마 핵종 분석기 1대와 자동시료주입장치 1대 등 관련 장비를 추가 구축한다. 또 방사선 검출 시에 대비해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유통 차단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를 맹비난했다.

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자국민의 의견과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전 세계의 안전을 역류하는 무자비한 행동"이라며 "전남은 수산 1번지로써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막대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했다가 보류한 일본 정부는 자국 어업인 등 지역민 반발과 국제 사회 비난 여론에도 방류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미국 대선 투표일인 3일(현지시간) 0시쯤 투표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 소재 발삼스 리조트의 헤일 하우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이 마을 유권자 레즈 오튼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14일 선거인단 투표…1월20일 취임
당선인 바로 확정 안되면 이양 차질 혼란

美 차기 대통령 취임 절차

3일(현지시각) 치러지는 미국 대선 투표는 기나긴 선거 레이스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차기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고 결과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는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간접선거제를 채택한 미국에서는 선거 결과의 최종 확정까지 남은 과정이 간단치 않고, 세계 최강국을 이끄는 자리인 만큼 당선인이 정식 취임 전 준비할 일도 많기 때문이다.

대선 승자가 누구인지를 1차로 판단하는 권한은 미 연방조달청(GSA) 청장에게 있다.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GSA 청장은 "명백한 선거 승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통보하고, 당선인의 취임 준비를 도울 인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 정권 교체를 이룬다면 취임 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전망이다.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요직에 누구를 기용할지 발표하고, 인수위 산하에 정부 부처별 정책 연구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 관료들로부터 국가 안보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받아 차질 없는 정권 이양을 준비해야 한다.

인수 기간에 마쳐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각료 인선이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과 같은 핵심 부처 장관들을 내정해 무사히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치는 게 급선무다. 장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대통령 산하기관의 고위직,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훨씬 간소화된다. 재선 대통령은 당선인이 아니라 곧바로 대통령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인수위를 꾸려 복잡한 권력 이양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2기 행정부를 구성하고, 한창 기승을 부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거 직후 깔끔하게 대선 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우편투표를 한 유권자가 많았고, 승패를 가름할 주요 경합주들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GSA 청장이 '명백한 승자'를 바로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선거 자체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식 절차도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미 전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은 오는 12월14일(12월 두 번째 수요일 지난 뒤 첫 월요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으로 투표한다.

선거인단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후보만을 지명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기 때문에 11월3일 일반 유권자 투표와 12월14일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형식상의 투표인 셈이다. 이들의 표는 117대 의회 출범 사흘 뒤인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정식으로 개표되며, 이 자리에서 당선인을 최종 공표한다.

/연합뉴스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산행안내

11월7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1월7일 전북 대둔산 · 돗대봉 단풍산행, 봉선동 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1월8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1월8일(일) 작은가야산(경남 합천), 염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홈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1월22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1월22일(일) 연석산~운장산(전북 완주), 염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홈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